

## 젊은 도시, 열린 미래 디지털 구미

한국내륙최대의 첨단전자정보통신 산업단지와 선진 농업기반을 바탕으로 구미시는 2006년에는 세계와 함께 호흡을 같이하며 생동하는 도시로 뻗어나간다.

### 구미지역의 산업경제

구미는 대한민국 첨단 수출산업단지 등 최대의 내륙공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발전의 중심축에 서있는 도시이다.

구미의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는 구미국가공업단지 1·2·3단지와 현재 조성 중인 제4단지를 포함하여 약 720만평에는 5월말 현재 719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률 86.5%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근로자수도 72,166명으로 전월대비 0.3%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호조의 현상은 구미 공업단지의 주력업종인 전기전자업종의 휴대폰 및 PDP 수출수요 증가가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수요 증가로 구미국가공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32.4%인 233개사가 전기전자업이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전자업의 공장가동율이 88.3%로 구미 국가공업단지의 평균가동율인 86.5%보다 높아 최근 부상하고 있는 업종임을 보여준다.

반면 섬유업은 158개사로 22%라는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나, 가동율이 69.9%로 다른 업종에 비해 현격히 작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최근 섬유업의 노력으로 수출이 증가되면서 전월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5월중 농축산물 수출도 전월대비 39.8%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하는 등 구미지역의 경제 전반적으로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한편, 구미지역은 국내 최대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장치산업이 많은 섬유, 기계업이 44%를 넘게 차지하고 있음에도, 2003년도 재해율이 0.59로 평균재해율보다 현격히 낮은 것이 인상적이다.

### 지역의 산업사회의 숨은 일꾼 안전인

〈〈삼성에버랜드주식회사 구미역사 신축현장 백성조 안전관리자〉〉

30도를 넘는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구미 시민의 염원을 해소하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

는 구미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시공앞에 서있는 백성조 안전관리자를 만났다.

이제는 안전이 설계단계와 각종 시공계획서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백성조 안전관리자는 마산대 산업안전관리과를 전공한 안전전문인이다. 96년 12월에 안전업무를 시작하여 올해 8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그는 구미역사에서 무재해 3배라는 쾌거를 달성하고 무재해 준공을 향해 매진하는 열성적인 안전인이다.

2002년 타워크레인 철도청 산하 안전진단 실시 결과 최우수 현장으로 이끌었고, 지난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주최한 일반건설업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에서 동상을 차지한 바 있다. 또한, 회사 대표이사상을 한 해에 2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그는 검증된 안전인이다.

구미 시민의 염원을 이루는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전국 역사중 아름다움답다는 평을 받고 있는 구미역사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백성조 안전관리자는 처음부터 안전인의 길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내가 맡고 있는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중압감과 열정으로 현장 근로자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근로자의 반발감을 자극하여 사고의 원인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된 경험이다. 이에 근로자들과의 마찰로 신참 신고식을 톡톡히 치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 후 백성조 안전관리자는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먼저 이해하는 안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의 의식 변화에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또한, 근로자의 의식변화는 참여 안전활동, 자율 안전관리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므로, 백성조 안전관리자는 매일 아침에 실시하는 아침조회와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열의 근로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근로자들도 알아야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백성조 안전관리자가 유별나리 만큼 철저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아침조회의 참여 실적에 따라 협력업체를 평가하여 포상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경쟁을 통한 참여를 유도하였다. 안전교육은 공정별로 근로자를 구분하여 공정에 맞도록 사례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백성조 안전관리자가 직접 나서서 교육을 한다. 공정별로 하다보면 몸이 열개라도 모자란다는 말이 실감나지만 이러한 나의 노력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해 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 백성조 안전관리자의 소박하고도 커다란 희망인 것이다.

한편, 곧 마감공정을 맞이하는 구미역사 현장에 백성조 안전관리자의 행동이 더욱 민첩해진다. 마감공정은 현장 출입인력이 증가하고, 작은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특성때문이다. 이에 백성조 안



▲ 백성조 안전관리자

전관리자는 벌써부터 예방대책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업무책임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마감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은 근무일수가 적고, 작업을 한 후 정리정돈에 신경을 쓰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가는 등 그들의 행동 특성이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백성조 안전관리자는 최근 우리 산업현장에 있는 안전인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안전에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한다. “안전제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안전인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안전인의 인력과 경력 관리 및 안전인의 소리를 대변해 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현장을 향한다.

### 〈〈주식회사 새한남중수안전과장〉〉

구미에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독일병정인 안전인이 있다. 주식회사 새한 안전관리파트의 남중수과장이 바로 그렇다.

안전에 대해서는 상하를 불문하고 절대로 물러서지도,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독일병정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는 부드러운 이웃집 아저씨이기도 하다.

80년에 입사한 그는 야간대학을 다니며 틈틈이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최근에는 페러글라이딩에 한창이다.

위험한 레포츠로 알려진 페러글라이딩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절대 위험하지 않는, 한번 해볼만 한 레포츠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사고도 기준에서 벗어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 산업현장에도 적용된다고 입을 연다.

안전기준을 무시한 행동은 곧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사례나 통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한 안전을 배워 익히고 몸에서 우러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 남중수 안전과장

이러한 탄탄한 기초의 안전을 추구하는 남중수 과장은 장치 산업에서 무재해 달성은 아직까지 이룩한 곳이 없으며, 꿈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곳에도 무재해기를 꽃을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한다.

1년에 20여건의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했던 10년전에서 경미한 사고 1-2건으로 개선된 지금 그 꿈을 이를 때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식회사 새한이 앞장선다는 포부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데에는 김연수 공장장이라는 인물이 뒤에 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



다. 선배와 직장 후배를 산업현장에서 함께 잃은 경험이 있는 김연수 공장장에게 안전은 한이 담겨 있다. 그래서 유별나리 만큼 안전에 관한 한 각별한 인물이라고 남중수 과장은 소개한다.

오늘 같이 30도를 넘고 불쾌지수가 높은 날에도 사무실에 에어컨을 켜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무실이 편안하면 매일 실시하는 현장 안전순찰을 게을리 할 수 있기에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목만으로도 김연수 공장장은 참으로 특별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최근 재래형 재해관리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스트레칭 경진대회” 추진과 “분기별 테마” 선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는 함께 연구하여 심도 있는 안을 도출하는 직장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근로자와의 약속을 철칙으로 알고 있는 남중수 과장과 생산 차질은 쓴소리 몇 마디로 끝내지만 잘못된 행동에서 오는 안전사고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김연수 공장장이 있어 장치 산업에서의 무재해 깃발이 주식회사 새한의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재난관리시스템

구미 지역에서는 지역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총괄 및 조정과 기관간 완벽한 공조체계 구축으로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대책위원회 25명과 기관별 재난관리계획의 수정, 보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위원회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 시행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평가 및 지도·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관리를 하는 안전관리체제도 구축하여 재난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최종덕기자〉

